

기발한 발상... 하지만 아쉬운 웃음 코드

김정숙 교수의 필름에세이

김창주 감독 '아마존 활명수'

킬링 타임용 코미디 영화 '아마존 활명수'가 개봉됐다. 진부해 보이긴 하지만 타이틀이며 출연 배우며 누구든 코미디를 집작하게 하는 영화라 한 바탕 웃고 가볍게 넘기고 싶은 관객이 찾을 법한 영화다. 오랜 만의 한국 코미디 영화 개봉에 첫 날인 데도 영화관에 제법 관객이 들었다. 이 건 순전히 1000만 영화 '극한 직업' (2017)의 후광 덕인가 싶다. '극한 직업' 각본을 쓴 배세영 작가가 시나리오를 담당하고 출연했던 류승룡과 진선규가 배역을 맡아서다. 여기에 관객이 요구하는 폭소를 동반한다면 또한 번의 전환 영화를 예상해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양궁 강국이다. 올림픽을 위시한 굵직한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의 기쁨을 국민에게 안겨 주는 효자 종목이다. 영화는 이 짜릿함을 포착했다. 왕년의 메달리스트 양궁선수 출신 조진봉 과장(배우 류승룡). 지금은 물산회사에 다니며 승진은커녕 회사에서 퇴출위기를 겪는 힘빠진 가정이다. 구조조정 위기에 빠진 진봉에게 회사의 금광개발 사업을 위해 볼레도르의 양궁 대표팀 코치를 맡는 미션이 주어진다. 아마존에 있는 볼레도르를 향해 가는 도중 그는



김창주 감독 '아마존 활명수'.

(주)바른손E&A 제공

불의의 사고로 원주민 마을에 불시착하게 된다. 그곳에서 아마존 전사 시카(배우 이고르 페드로소), 이바(배우 루안 브룸), 알부(배우 J. B. 올리베이라)를 만나게 된다.

사냥으로 단련된 활 솜씨를 어느 공사가 겨룰 수 있을까 싶게 이들은 '활의 명수'였다. 그를 구하러 온 정부군과 통역사 빵식이(배우 진선규) 덕에 목숨을 구하게 된 진봉. 그는 볼레도르 체육부장관에게 이들을 선수로 요청하게 되고 볼레도르 정부는 이 부족을 더 이상 적대시하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조건을 협약하게 된다. 진봉은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양궁대회에 이들을 출전시키기 위해 시카, 이바, 알부 그리고 통역사 빵식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온다. 6개월 간의 훈련기간을 보내면서 이들은 좌충우돌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스토리의 구성이 촘촘하다. 무엇보다 스토리 발상이 매우 기발하다. 발상 못지 않게 웃음 신 역시 과할 만큼 곳곳에 구석구석 배치되어 있다. 문제는 이 웃음이 빡긋 할뿐 폭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 동안의 영화, 특히 '극한 직업'에서 보여준 무릎을 치며 웃어대던 관객의 모습이 이 영화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영화에 담긴 웃음 코드가 관객의 요구 코드와 깨끗 어긋난 이유는 지나치게 코미디 문법에 열중한 것이 아닐까. 관객의 수용수준이 높아진 것을 간과한 것이 아닐까?

웃음과 해학에는 시대의 흐름과 문화적 자본이 영향을 미친다. 이 문화적 자본은 독서력을 포함한 문화이력이 개인별로 누적된 저력과도 같다. 그리고 학력, 정치사회적 배경, 세대문화 등을 함의한다. 고(故) 한승헌 변호사님은 필력이 대단해서 한국 현대

사의 굵직한 사건들(민정학원 사건, 월간 '다리'지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부천시 성고문 사건, 황석영 방북 사건 등)의 변론문을 명문으로 남긴 분이다. 서슬퍼런 군부정권 하에서 늘 지는 재판관을 해왔지만 역사 재판에서는 이기는 진정한 인권변호사였다. 그의 언어에는 늘 고급 웃음 코드가 담겨 있다. 그냥 빡긋이 웃어 넘기는 정도가 아니라 박장대소를 불러일으키곤 했다. 그 웃음 코드를 책으로 풀어낸 것도 '산민객담' (2005)을 위시한 10여 권에 달한다.

이제 우리의 코미디도 슬랩스틱이나 억지웃음을 유발하는 기존의 공식에서 벗어나 업그레이드에 업데이트를 거듭해야 객석의 지루함을 면할 수 있다. 빈틈없는 스토리텔링으로 코미디의 세계관을 바꾸어 놓아야 관객에게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영화 '아마존 활명수'의 코미디 세계관은 작가와 감독이 객석의 과녁에 빗나가게 쓴 화살과도 같았다. 영화의 전반적 흐름에 배우 류승룡과 진선규 연기의 힘이 힘을 신고 있었다. 이들을 두고 '류진스'라 일컬을 만큼 주역으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주역의 연기력이 부각되려면 받쳐주는 조역의 역할이 중요하다.

영화의 빛나는 조연은 시카, 이바, 알부야야 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조연의 빛이 나질 않았다. 실제로 아마존 원주민인 그들에게서 '아마존의 눈물' 빛이 좀 더 강했더라면 객석에서 조마조마 두근두근하는 응원 에너지를 더 발현했을 터인데... 메달이야 따졌지 싶은 뻘한 결말을 예상하는 정도에 그쳐 아쉬웠다. 웃음 코드 속에 숨어 있는 아마존의 눈물...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의 훼손은 온 지구인들이 함께 흘려야 할 눈물이다. **백제예술대 명예교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사회

기고
박병훈
특특브레인심리발달 연구소 대표



죽은 자들의 사회다. 국정감사를 보다 울화통이 치밀었다. 하나같이 뻔뻔하고 인간성을 잃은 국가기관 기관장들의 태도 때문이다. 예의는 그렇다 치자. 복제 인간처럼 똑같은 모습이였다. 그들은 절대선이었다.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해괴하고 기이한 논리로 자신들의 잘못을 중화시켰다. 과도한 자기 방어를 보였다. 마치 공기압이 너무 높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풍선처럼 부풀어 있었다. 자아가 팽창한 사람들은 자신을 아주 중요한 존재라고 스스로 여긴다. 자신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자신보다 무능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분개를 하기도 한다

이들은 외부의 비판에 견디는 힘이 약하다.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으면 화를 낸다. 대인관계는 깨지기 쉽다. 관습적인 규범이나 규칙을 따르지 않아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착취하는 행동도 자주 보인다. 이들에게 공감능력이 없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정서적 교감을 한 것처럼 가장할 때는 있다. 자아가 과도하게 팽창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한다. 부와 명성에 대한 집착과 야망도 크다. 이들은 대인관계의 어려움, 적응문제, 거절, 상실감을 경험한다.

이런 문제의 원인 제공을 자신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의사소통을 할 때도 판단적이다. 사

람이나 현상을 판단하는 인지과정은 단정적이고 이분법적이다. 이들은 편견에 치우쳐 있다. 객관적 기준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소설을 써서 다른 사람의 내면을 재단한다. 이들은 타인에 대해 이중구속적인 관점을 취한다. 업무를 잘 해도 조롱하고 벌을 준다. 위협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벌을 준다.

인간의 심리적 장애에는 두 가지가 있다. 신경증과 정신증이다. 신경증이나 정신증 환자들은 일정한 증상을 가지고 있다. 신경증의 특성은 외부 자극에 유연하지 못하고 항상 일정한 반응을 보인다. 보통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믿을 만하다고 느낀 사람에게 신뢰를 갖는다. 이와 반대로 믿음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심을 한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신경증 환자들은 모든 사람을 의심한다. 신경증 환자들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 낮은 성취를 보인다. 스트레스나 감정적인 어려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격적 특성 때문이다. 주로 불안이나 걱정, 공포감을 지속적으로 느낀다. 부정적 감정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 힘든 일이 아니어도 너무 많은 걱정과 지나친 자기비난을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정신증은 현실을 왜곡하거나 잘못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사고의 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그 중 첫 번째 위험요인은 무책임하고 무능력함에 비해 자아가 지나치게 팽창한 리더들이다. 시민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 그들만 모른다. 이들은 중화기술을 자유자재로 사용한다. 중화

기술은 자신의 문제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기술을 일컫는다. 이들이 사용하는 중화기술은 다섯 가지 정도로 보인다.

첫째, 책임의 부정이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합리화한다. 한 발 더 나아가 자신도 희생자임을 강조한다.

둘째, 가해의 부정이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손상이나 피해를 본 사람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킨다.

셋째, 피해자 부정이다. 피해자가 피해를 자초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여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방법이다. 넷째, 비난자 비난이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합리화하는 방법이다. 어디서 많이 보아왔던 방법 아닌가. 모든 문제를 전정권 탓으로 돌리는 일 말이다.

마지막으로 높은 충성심에 호소하는 일이다.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에 대한 의리 혹은 충성심 때문에 문제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리화시키는 것이다. 지금 현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거짓말에 딱 들어맞는 해석이다. 작년 고독사로 인한 사망자가 3661명이라는 뉴스를 보았다. 자영업자는 쓰러져 가고 있다. 의료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의료파탄이 되었다. 시민들이 피리를 불 때 춤을 춰야 한다. 시민들이 애곡을 할 때는 같이 울어야 한다. 무거운 돌덩이를 치워야 놀려댈던 사람들이 자라고 성장한다. 자기를 줄여야 다른 사람이 산다. 귀도 한쪽만 사용하면 소리의 크기와 방향에 둔감해진다.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피리를 불 일이나 춤 출 일이 없기 때문이다. 통찰과 분별력이 요구되는 사회다.

유가족과 한 약속이 지켜지기를

취재수첩
민현기
취재2부 기자
hyunki.min@jnlbo.com



2022년 10월 29일. 159명의 꽃다운 청년들이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었다. 2년간 유지됐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시민들은 기대감에 부풀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올 거라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이태원 골목은 가로세로 1m 안에 16명이나 몰릴 정도로 군중 밀집도가 치솟았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참사를 두고 책임있는 기관들의 무책임한 대응에 따른 '인재'로 결론 지었다.

참사가 발생한 지 겨우 2년 지났다. 20년이 지나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다시 안전불감증이 도래했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고작 2년 만에 광주 동구에서 다시 겪을 뻔 했다.

10월26일 총장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열린 '총장상권르네상스 라온페스타'에 대규모 인파가 몰렸고 좁은 골목에 군중 인파가 대거 몰렸지만, 안전요원은 턱없이 부족했다. 2년 전 인파의 흐름이 멈추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시민들에게 이동을 지시하는 안전요원은 2명 뿐이었다.

무대 진행자는 메인 이벤트가 시작돼 인근 건물 옥상에서 인공 눈이 뿌려지자 "모두 멈춰서 인증샷 한번 찍읍시다"고 말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전무했다.

경찰에 사전 협조요청도 없었다. 이태

원 참사에서 시민들의 질서를 유지할 경찰 병력의 부재를 두고 법원에서 사고 예견 가능성과 주의·감독 의무를 다 했는지 등을 검토해 유죄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동구는 '방문객이 적어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협조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터무니 없는 입장을 밝혔다. 심지어 이후에도 경찰 협조요청 보다 예산을 소모해 사설 경호 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끝내 우체국 사거리 네 방향에서 몰린 사람들은 공연을 보기 위해 멈추는 사람과 지나가려는 사람들이 서로 충돌하기를 반복했고 끝내 인파 흐름이 멈추고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했다.

행사는 수차례 신고로 뒤늦게 현장 상황을 파악한 경찰이 위험성을 판단, 강제 해산 집행을 명령하면서 중단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됐다.

이태원 참사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로서 나는 아직 그날의 참혹함을 또렷하게 기억한다. 참사로 인해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한 슬픔을 겪는 유가족들에게 사연을 물으며 한가지 약속을 했다. 참사에 휘말린 분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다시는 군중 인파 재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다.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공감해사라도 안전대책만큼은 과할 정도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 욕심인 것일까. 참사는 이태원이라서, 헬리콥터라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군중인파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는 게 중요한 맥락이다. 단순히 우리 지역이 아니고 쉽게 잊혀지지 않는 사회가 오길 바란다.